

GMQÑ ÌMPOÑRCEÖÖ 박사Æ 신약 문학Æ 강의 ÊÇÆ 사도행전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13강, 사도행전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계획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조에 관해 우리가 말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복음서를 다루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주요 주제와 일부 주요 본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의 예를 살펴보고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책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적어도 우리가 제기하고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테스트 사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기도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원래의 설정과 문맥에 비추어 아버지의 말씀을 멈추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배치된 일련의 문서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말씀뿐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에너지와 규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 영적 능력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면 이 모든 것을 텍스트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구조와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본문은 1장 8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곧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 누가, 요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후에 추종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거나 그들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시니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그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로 선교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임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본문, 능력이거나 성령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임한다는 언급, 증인이 된다는 언급, 땅 끝까지 가겠다는 언급 등 모든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땅 끝까지 확장하겠다는 이사야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땅 끝까지 회복하고 전파하려는 이사야의 예언과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로 선교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회복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이사야 32, 43, 49장을 참조한 노트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반면, 1장 8절은 또한 이사야서 32, 43, 49절이 어떻게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회복을 위한 이사야의 비전을 성취하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첫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6장 앞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다음 여러 장, 즉 사도행전 6장부터 9장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12-28장은 땅 끝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사야서 및 구약과 다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동심원을 넓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훨씬 넘어서는 영토를 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이 이 복음이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누가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구약의 왕국과 성취에 관해 가져오는 이 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구약의 성취에서 점점 더 작은 유대인 영토를 포용하기 위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어떻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점점 더 작은 유대인의 영토를 다루고 포용하며 로마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행전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취하고 복음 안에서 성취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유대인이 적은 곳으로 전파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문화적 장벽과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누가가 둘 다 두 권으로 된 책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가 신약성서에 포함되기 전에는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세요. 첫 번째 책인 데오빌로에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언급된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데오빌로라 부르는 누가복음 첫째 책에 내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글을 썼노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와 평행을 이루는 사도행전의 몇 가지 중요한 본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이사야서, 특히 후반부를 말했지만 책 전체는 이사야서의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구원으로 시작되는 회복.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이사야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포로 상태에 있거나 포로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될 때를 예상합니다. 왕국 회복을 위한 준비. 또한 이사야가 기록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윌슨 교수, 힐데브란트 교수, 필립스 교수와 함께 했던 구약성서 조사를 기억하시나요?

분열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왕국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입니다.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도 이와 동일한 체계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회복된 왕국의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들이 가장 먼저 가기 시작한 곳 중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인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열된 두 왕국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회복 약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나를 약간 당황하게 했던 흥미로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은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내가 내 영을 부어 주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의 성취로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직 1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친구들아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을 복음서로 다시 데려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으며 기본적으로 더 이상 열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문제는 이제 열한 명의 제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사람들이 한 명의 제자를 더 선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실제로 제비를 뽑았는데 마티아스라는 사람에게 제비가 뽑혔고 그는 제자 1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이 끝나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뽑았고 그는 열한 사도의 수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12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있어야 했는지, 제 말은, 우선, 여러분은 왜 11개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특히 유다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열한 명으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까? 루크는 왜 그것을 녹음해야 했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열두 사도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다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열두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 한 사람인 유다는 변절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는 11로 끝납니다. 사도는 열한 명뿐인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사도행전은 열두 번째 사도가 추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이상적인 소그룹 규모입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숫자 12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열두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모아서 하신 일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와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열두 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성취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에는 열두 번째 사도가 등장합니까? 아니요, 내 생각에는 Paul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두 사도에 추가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나는 여기 마티아스가 원래의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랬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지적이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을 잘못 잡았네요. 다시 시도하자 풀이 잡혔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열둘에 더해진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합법적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회복 약속 중 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열두 번째 사도를 선택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두 번째 사도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사야가 한 예언이 열방에 의해 성취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회복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두 번째 사도. 그러므로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해당하므로 열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이사야의 회복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만, 국가적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열두 지파 위에 세우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지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들이니라.

그래서 국경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의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의 저자는 교회가 열두 번째 사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서의 회복된 왕국인 열두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로 선택받은 열두 번째 사도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의 요소는 더 이상 국가 정체성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아닌 열두 사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핵심 텍스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중 세 가지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 고유한 몇 가지 다른 요소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다시 구약성서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례가 없는 유례없는 사건은 아니었다.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변호할 때 구경하는 자 중 어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취한 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방언을 말하며 구경하는 자들은 취한 줄로 생각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구약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요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약성서에서 예언하고 예상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사야서, 에스겔, 예레미야 및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며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이제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개념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속한 일도 아니고 사도행전의 저자에게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구약에서 기대했던 일이 분명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은 단순히 새 언약 성취의 일부일 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날을 예상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그 새 언약의 일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서 그들이 위로부터 성령이나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회복과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 장을 건너뛰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즉,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므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알려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넉넉한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고넬료라 하는 것이 분명하였더라. 그는 겁에 질려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을 옹바로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종들과 자기를 섬기는 자 중에서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말한 후 옹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피터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였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그는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아지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경험한 것과 매우 유사한 환상적 유형의 경험일 것입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이 환상을 본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황홀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모퉁이가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 안에는 네 발 가진 각종 생물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물건은 홀연히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선언된 모든 동물이 들어 있는 시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신의 음성일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던 이 동물들이 이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는데 그는 베드로가 있는 옹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이야기와 구약의 율법인 모세 언약 하에서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던 동물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이제는 깨끗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피터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가요?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다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본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언급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동물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서 당신을 구별해 주었던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보시고 이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깨끗하여 이제 그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줌으로써 입증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폐지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음식법, 즉 유대인들이 특정 종류의 음식이나 특정 종류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 구약의 음식법, 그 기능 중 하나는 유대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정체성 표시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민족의 유대인.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초기 교회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끝. 즉, 교회는 점점 더 이방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가장 극심해지는 장소 중 하나와 시기 중 하나는 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정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고기는 이방인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환상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과 함께 이제 이방인들이 깨끗하다고 선언되고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으며

, 그들을 환영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사도행전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의 목적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은 다소 좁은 유대인의 영역에서 점점 더 낮은 유대인 유산을 가진 사람들, 즉 점점 더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서 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 즉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썄, 그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례를 의미하는 남성을 위해, 음식 법 준수, 안식일 준수 등을 의미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이 환상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아니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할례, 특정 고기 먹기, 안식일 준수와 같이 잘 알려진 유대인의 정체성 표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목적입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함에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깨끗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음 중요한 본문은 잘 알려진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날짜, 서기 70년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AD 70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거기에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것을 사도행전 15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유대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0장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첫 번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감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즉,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요구됩니까?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을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포경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포경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 전체를 채택하고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표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이 이 문제를 사도와 장로들과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작정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따라 가다가 미안하지만 교회의 보냄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 두 곳을 지날 때에 이방인들에게 회심의 소식을 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신자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신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더라. 그래서 다시 그들은 고넬료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복음에 반응했다는 소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부터 듣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할례를 받는 남자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과 음식에 관한 법과 다른 법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함께 모여 이에 대한 기본적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교회는 깨어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심지어 베드로가 항상 실천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일관성 없이 행동했다는 사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의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구성원으로 만들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도 교회가 깨어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괜찮았고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반대 와 오해, 논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저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이후의 장소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결과는 뭐, 그게 진짜 경험이었을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등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통과하고 싶지 않고, 그 질문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이르면 같은 문제 때문에 그것에 관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법에 특정 부분이 있나요? 내 말은, 예수께서는 율법 전체를 폐하려고 의도하셨는가? 사람들이 여전히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법과 의식법을 구별했습니다. 제사와 할례에 관한 의식적인 율법, 음식에 관한 율법 등은 폐기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과 같은 도덕법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또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한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 그가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은 율법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갈라디아서가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면 그들의 도덕적 지침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인도할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 순종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에 대한 답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유효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일부는 여전히 구속력이 있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울에 따르면, 나는 모세의 율법 전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꽤 분명한 것 같아.

그러나 그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도덕적 지침이 전혀 없다는 의미도 아니며 바울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룰 것입니다. 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아요, 그게 세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관한 몇 가지 다른 독특한 점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 본문 중 질문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일, 즉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으로 말하는 일 등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사도들과 다른 추종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복제되지만 복음은 유대인 영토를 벗어나 점점 더 작은 유대인 영토, 더 많은 이방인 영토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종종 당신은 유일한 결론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직계 추종자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다. 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사도행전의 두 가지 특징은 사도행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또는 여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지도 전체를 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심지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동심원적 구조에 들어맞는지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일종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 빨간색 점선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실제로는 넓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방인 영토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그를 이방인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이 보라색 선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나타내며, 사도행전에는 그 중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그를 그리스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 이 녹색 선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선교 여행도 그를 같은 지역 중 일부로 데려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훨씬 넘어 퍼져나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황색 선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곳인 로마의 바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바울로 끝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Acts가 해야 할 전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성취가 바울이 로마에 도달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은 바로 거기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바울의 여행 범위와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9장이 바울의 회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 대부분은 바울과 그의 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여행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Paul이 단지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 많이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것의 일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그가 실제로 이 여러 도시에 최대 1년 반 또는 2년 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집을 구입하고 거주지를 마련했으며 심지어 사업을 시작하고 이러한 도시 중 일부에 한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가 있었던 다른 도시들이 훨씬 더 짧았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하나와 관련하여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도시 중 하나는 린치 폭도들이 그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의 철학은 이 도시 중 한 곳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만큼 오래 머물렀다가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여행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여행에 대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이 이 여행에서 방문한 대부분의 도시가 바울이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편지를 쓸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와 같은 도시를 방문했고 고린도와 같은 도시와 다른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바울이 나중에 신약성서의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게 되는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종의 소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 책은 베드로와 같은 다른 주요 특징도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도 있으므로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른 주요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입니다.

누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성령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인식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의 성령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여러 사건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책에서 진행되는 일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더 나은 용어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미 말했듯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성령에 대한 언급은 항상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 성령의 임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는 아주 새로운 일이나 기독교적인 일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 시대와 관련하여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거나 제정하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로 새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에 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특히, 이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리고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훑어볼 때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사도행전을 읽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경험을 위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예로서 저는 사도행전 8장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 너머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세요. 흥미롭습니다. 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했습니까? 두 사람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함이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더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멈출 것이다.

8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도행전 전체에 퍼지면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부어지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 이제 새 언약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고 이제 성령이 부어지시며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때로는 이 모든 흥미로운 일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다소 규범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거지? 먼저 이 말씀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방언과 병 고침, 기적 같은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임재와 이 새 언약의 구원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유대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퍼질 때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동반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영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동반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은 표적과 기사가 아마도 다시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적과 기사, 홍해를 건너는 기적, 만나를 공급하신 기적 등을 회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적과 기사에도 구약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는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항상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할 때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때로는 방언과 다른 기적의 표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만 성령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규범적인가, 아니면 서술적인가? 즉, 사도행전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는 패턴을 확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일어나는 패턴을 확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규범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거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규범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적인가? 사도행전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복음이 점점 더 작은 유대인 영토로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방식에 대한 모델이나 패턴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대답의 일부가 둘 다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나는 때때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울타리에 걸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행전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반드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이 주로 단순히 복음이 점점 더 작은 유대인 영토에 전파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부분은,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적인 부분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번 일어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때 방언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만 즉시 성령을 받지 못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서술적입니다.

새 언약의 구원이 확산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움직이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하면 그 순서가 다소 독특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했고 심지어 침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표준을 제공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말한다면 다시 다른 텍스트를 읽으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의 손이 얹혀지지 않은데도 영이 그 위에 임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지만 때로는 방언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두 가지, 두 사도가 도착할 때까지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왜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여기 두 명의 사도가 이전에 부정했던 것, 즉 사마리아인들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마도 복음에 반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들을 만지고 손을 얹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안수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강림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수행한 역할을 기억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대변인이 되기 전까지는 즉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안수할 때까지 그들은 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그래서 뭐? 또, 이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만약 사마리아인들이 믿을 때 즉시 성령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여, 이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응, 절대 안돼. 그건 불법이 아니야.

이들은 역겨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안수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강림을 지연시킴으로써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누구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소수 유대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역겨운 사마리아인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받았음에 논쟁이 없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을 보류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13강, 사도행전입니다.